

영산강사업단, 2025년 재해대비 금호방조제 비상대처훈련 실시

✎ 봉채영 기자 | ⓒ 승인 2025.04.30 10:43



금호방조제 비상대처훈련 사진=영산강사업단 제공

[전남=데일리한국 봉채영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단장 박형수)은 집중호우, 태풍, 지진 등 예상치 못한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금호방조제 비상대처훈련을 실시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단장 박형수)은 지난 29일 해남군 산이면 금호리에 위치한 금호방조제에서 집중호우, 태풍, 지진 등 예상치 못한 재난 상황에 신속한 대처를 위한 비상대처훈련을 실시했다고 30일 전했다.

이번에 실시한 비상대처훈련은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소방서, 긴급복구동원업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집중호우 시 금호방조제 배수갑문 시설물 손상으로 인한 긴급 상황에 대처하는 모의훈련으로 상황별 위기 대응 및 긴급 복구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또한, 비상대처훈련 전(前) 금호방조제 비상대처계획(EAP) 등 안전관리실태 자체 점검을 하고, 본(本) 훈련에서 비상대처계획(EAP)에 따른 상황전파 및 단계별 조치사항에 대한 훈련을 실시했다.

박형수 단장은 "비상대처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직원들의 위기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으며, 시설물을 사전 점검하여 재난 상황에 대비하고 안정 영농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봉채영 기자 bcy2020@naver.com